

미노 데스크 와시

미노 지방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와시는 미노 데스크 와시(‘데스키’는 손으로 뜯다는 의미)라는 브랜드입니다. 미노 데스크 와시도 혼미노시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혼미노시와 미노 데스크 와시 모두 기본적인 공정은 같지만, 혼미노시가 이바라키현 다이고마치에서 자란 닥나무의 속껍질 섬유만을 사용하는 데 비해 미노 데스크 와시는 닥나무 외에도 삼지닥나무(팥꽃나무과의 나무)나 안피(산닥나무속의 관목)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 건조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으로서 혼미노시는 반드시 햇볕에 말려야 하지만, 미노 데스크 와시는 기계를 사용해서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노 데스크 와시는 연중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노와시노사토 회관(미노시)에서는 몇 가지의 데스크 와시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노 데스크 와시의 종류

미노 데스크 와시에는 라쿠스이시, 기가미, 운류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라쿠스이시는 건조하기 전에 물을 끼얹어 물방울 무늬를 넣은 것입니다. 기가미는 원료만 뜨고 햇볕과 물로 표백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따뜻한 느낌의 색으로 완성됩니다. 운류시는 섬유를 길게 찢어 무늬를 넣은 종이로서 자연적인 느낌의 아름다운 무늬가 생겨납니다. 이 와시들은 등롱이나 접부채, 편지지 등에 사용됩니다.